

Chaeg



책 : 책과 문화,
예술을 담은 잡지

NO.31

November 2017

마을 (Village)

이달의 토픽

젠트리피케이션

책 속 이야기1

흑도 백도 아닌 흑백의 이야기,
Basterland

책 속 이야기2

놀이터가 사라졌다

포토인터뷰

서울, 동네 사람들



걸리버와 떠나는 아찔한 모험

에디터 이희조

영국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명작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에 가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야기 속에서 걸리버가 다니는 곳은 소인국 이외에도 다양하다. 키가 20m도 넘는 거인들이 사는 나라 브롭딩낙,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 말(馬)이 지배하는 나라 야후 등 끝없이 난파하는 배 덕분에 걸리버는 세상 이곳저곳을 탐험할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물안’에 있었을 땐 몰랐던 인간 세상의 허위와 가식을 깨닫게 된다.

걸리버를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항해라면, 현대 인류는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하늘 위를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높은 곳에서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걸리버처럼

소인국에 가볼 수 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개미보다 작은 존재들이나 마찬가지로 지나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구조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체코 프라하에 있는 유럽 최대규모의 현대미술관인 DOX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옥상에 설치된 ‘걸리버Gulliver’이다. 이 건축물은 하늘 위를 표류하다 건물 사이에 침범한 비행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언뜻 사고 현장처럼 위태롭고 위험해 보이나, 체코 출신 국제건축상 수상자 마르틴 라이니쉬Martin Rajniš가 이끄는 후트 아키텍트리Hut' architektury가 2년의 설계 작업과 1년의 공사를 거쳐 완성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강철과 목재로 만들어진 길이 42.4m, 최대 지름 9.35m,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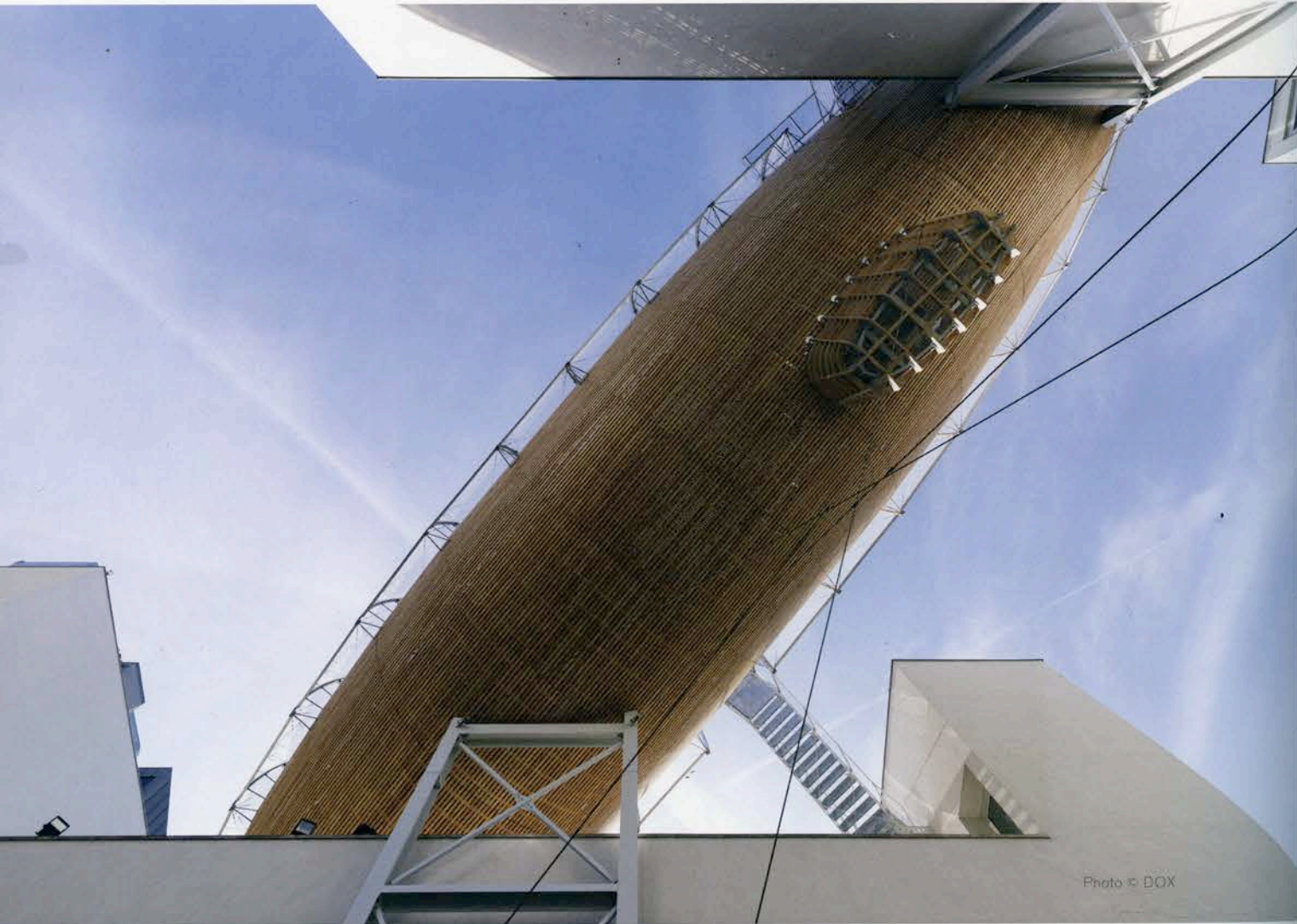


Photo © DOX



Photo © DOX



Photo © DOX



Photo © DOX

24.35m의 걸리버는 설치 예술인 동시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작년 12월에 일반 대중에 공개된 후 주로 책이나 예술과 관련된 행사를 열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2017 프라하 국제 도서 박람회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문학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는 ‘Book & Fly’ 프로그램을 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문학이 가진 무한대의 상상력을 구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걸리버. 이곳에서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경험이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걸리버의 여행과도 같은 것이 아닐는지. 하늘을 날다 낯선 땅에 불시착하는 아찔한 모험을 당신도 해봤으면 한다. ●

DOX Centre for Contemporary Art
Poup tova 1, Prague 7, Czechia
www.dox.cz